태풍 · 장마에… 농작물 침수 · 가축 폐사

전북지역이 피해 가장 커… 전체 침수 피해 농경지 절반 가량 물에 잠겨

농 · 식품부 간부들 현장行… 20일까지 피해조사 후 재해복구비 지급

제7호 태풍 '쁘라삐룬'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농작물 8500여 ha(헥타르·1ha=1만㎡)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경지 6.2ha가 유실되고 가축 5만6000여 마리도 폐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오전 7시까지 집계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면 전국 농작물 8514ha(85.14㎢)가 침수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9.4배에 해당한다. 물을 빼내는 퇴수작업은 모두 끝낸 상태다.

전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체 침수 피해 농경지의 절반 가량인 4169.5ha가 물에 잠겼다. 뒤이어 전남 2577.0ha, 충남 1607.0ha, 경남 122.0ha, 경북 31.5ha, 충북 6.2ha, 경기 1.5ha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 7281.5ha, 전작 743.7ha, 채소 219.0ha, 특작 56.3ha, 과수 9.8ha가 침수 피해를 봤다.

유실된 농경지는 6.2ha로 집계됐다. 충남(5.0ha), 전북(0.8ha), 경북(0.4ha)에서 피해가 났다.

전북에서는 닭 4만6000마리와 오리 1만 마리가 폐사했고, 충남에선 양봉 80군이 물에 잠겼다.

전남 보성의 모원저수지 제방사면 10m도 유실됐지만 응급복구를 끝마쳤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태풍 쁘라삐룬이 이날 낮 12시경 독도 북동쪽 10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피해는 태풍보다는 전라남·북도 장마 전선에 따른 집중호우 영향이다. 태풍이 (몰아)쳤다면 시설물 피해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특징인 침수로 인한 병충해 2차 피해가 우려돼 물이 빠지는 상황을 봐가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차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간부들은 이날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는다. 농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후속대책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6~11일 엿새 동안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기술지원반'(5개반 15명)이 작목별 맞춤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오는 20일까지 지자체별 피해조사 결과가 전달받아 재해복구비도 조기 지급한다. 재해복구비는 농약대(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생계비로 나뉜다.

농약대는 채소류의 경우 ha당 30만원에서 5.6배 인상된 168만원을, 과수류는 ha당 63만원에서 2.7배 오른 175만원을, 인삼은 ha당 23만원에서 14배 오른 323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파대는 엽채류(ha당 297만→410만원)의 경우 1.4배, 과채류(ha당 392만→619만원)는 1.6배 지난해보다 더 받게 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50%를 넘으면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준다.

또 희망 농가에 한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최대 2배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피해 농가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해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한다. 손해평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고접수 즉시 손해평가 인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업 유관기관은 피해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농가 일손돕기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정도와 퇴수 시점 등을 고려해 농가를 선정한다.

이 국장은 "이번 태풍 및 호우로 피해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지역본부, 창립 57주년 기념 총화상 등 다수 선정 쾌거

허수종 샘골농협조합장 ·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등

허수종 조합장

임정현 총국장

김장수 조합장

농협중앙회가 전국 26개 총화상 가운데 전북에서는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과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 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임정현)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평소 농업인 실익증대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성당농협(조합장 윤남용)은 공로상을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 김제원예농협 (조합장 박진태),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 각각 공적상을 수상했다.

전국 우수 직원상에는 농협은행 정읍시지부(과장 김영미). 해리농협(과장보 정한진)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범농협 직원 43명이 공로상에 선정됐다.

아울러, 전북지역본부 송호선 계장이 '2018년도 자랑스러운 농협인상'에 선정, 1직급 특별 승진했다.

이런 성과는(중앙회·은행·농축협) 등 범농협 간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물로 달라진 전북농협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시상식은 당초 7월 2일 창립기념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태풍 북상에 따른 농업인 안전과 농작물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취소되어 8월 중 예정이다.

한편,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범농협 사무소를 대상(친절봉사, 인화단결, 사회공헌, 업무추진능력)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사무소에 시상하는 농협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NH농협은행, 비대면 적립식 펀드 가입 고객 이벤트 실시

응모 고객 대상 추첨 통해 총 200명에게 현금 5만원 입금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비대면 펀드 가입 시장의 확대에 따라 8월 31일까지 온라인상 적립식 펀드, 신규가입 한 고객 대상으로 '인생(人生)펀드 만나러 갑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생(人生)펀드 만나러 갑니다' 이벤트는 응모 기간 중 온라인상(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NH금융상품마켓) 10만원 이상 적립식 펀드 신규, 매월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및 목표 수익률 등록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당첨 펀드계좌로 입금)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중 예정이며 금융 상품마켓 이벤트 당첨자 발표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의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성향에 적합한 인생펀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당 이벤트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와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5월 온라인쇼핑 전년比 22.7%↑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두 달 만에 9조원대를 다시 돌파했다. 모바일쇼핑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54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증가했다. 지난 3월 이후 두 달 만에 9조원대를 다시 돌파한 셈이다.

상품군별로 여름휴가 및 국외여행 예약 증가와 교통서비스 등 온라인 구매 증가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전년동월대비 24.2%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주부들의 간편식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음·식료품도 29.9% 늘었다. 화장품(32.0%)과 음식서비스(70.2%)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전년동월대비 음식서비스(1.2%p), 화장품(0.6%p) 등이 확대됐다. 반면 문화 및 레저서비스(-0.7%p), 의복(-0.6%p) 등은 축소됐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조628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8%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2.2%로 지난 4월 최고치보다 0.9%포인트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간편 결제의 편리성 등으로 여행, 음식 관련 서비스가 증가하고 음·식료품, 가전·전자 등의 상품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군별로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0.7%), e쿠폰서비스(81.0%), 아동·유아용품(75.6%) 순으로 높았다.

전년동월대비 문화 및 레저서비스(22.6%p), 사무·문구(10.3%p) 등은 확대됐지만 e쿠폰서비스(-2.1%p), 화장품(-1.9%p) 등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거래에서 모바일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가업 잇는 승계농 역량 강화 지원"

농촌진흥청이 가업 승계농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다.

농진청은 지난 3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대(代)를 잇는 가업 승계농 42명을 대상으로 농촌융합·복합사업분야에서 농업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품평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품평회에 참가한 이들은 9월로 예정된 관련 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경영 전문가는 물론이고 상품 전문가도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제품 평가와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이날 출품한 상품 중 디자인과 소비자 편의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업체와 입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반기부터는 경영 전문 교육과 가업 승계농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결성해 영농·가공·창업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기술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농진청 농촌지원과 이명숙 과장은 "가업 승계농이 경영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농촌융합·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길 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18년째 생명나눔 실천 현대차 전주공장, 사랑의 헌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8년째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4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이날 점심시간 동안 사내 각 식당 앞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최근 헌혈 참여 인구 급감에 따라 전북지역 혈액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수혈 등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127명의 직원들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긴급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18년째 꾸준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누계 참여인원 5000명 돌파라는 의미있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전주공장은 헌혈을 통한 소중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